

바흐의 칸타타와 루터교의 신학 언어*

이가영(성신여대, 부교수)

1. 들어가며

2023년 5월 30일, 연세대학교에서 개최된 제92차 한국 서양음악학회 학술 포럼에서 음악학자 허영한은 “그들은 왜 노래했을까: 음악과 그리스도교”라는 제목의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이 흥미로운 제목의 발표문에서 그는 음악과 그리스도교에 관한 학문적 논의가 매우 제한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허영한의 이러한 주장은 이 주제와 관련된 그 방대한 양의 (학위) 논문과 서적을 고려할 때 의아한 것이다.¹⁾ 그러나, 국내에서 출판되는 대부분의 음악학 문헌들이 과연 ‘신학적인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가, 그리하여 충분히 신학적인가를 되묻는다면, 우리는 허영한의 주장을 무겁고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글은 허영한을 위시한 일부 국내 음악학자들의 지적과 이에 따른 학문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다. 즉, 이 글이 설정한 연구 방향은 음악과 기독교, 또는 음악과 기독교의 관계라는 다소 거대하고 포괄적인 지점을 겨냥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 하에서 펼쳐는 각론으로 구상되었다는 말이다. 특별히 필자가 의도하는 것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와 그의 교회 칸타타 안에 흐르는 ‘당대’ 루터교의 신학 언어를 읽어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역시 신학적인 언어로 번역하는 일이다.

바흐는 생의 대부분을 루터교 교회의 칸토르로 살았다. 전문음악가의 길로 접어드는 시기가 22세가 되던 1707년이고 라이프치히 성토마스 교회와 학교의 칸토르로 부임하는 시기가 1723년

* 이 논문은 2023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1)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이용해 교회음악과 관련된 문헌을 검색하면, 750여 편에 이르는 연구논문과 2,500편에 달하는 학위논문을 만날 수 있다.

이며 세상을 떠나는 시기가 1750년이니 그는 40년이 넘는 세월을 음악가로, 그중 27년이라는 시간을 루터교 예배음악을 집중적으로 작곡하고 연주하는 교회 음악가로 살았었다.²⁾ 이러한 바흐의 삶을 돌아볼 때, 특별히 그가 루터교 예배를 위해 남긴 수많은 칸타타와 오라토리오들을 생각해볼 때 바흐의 음악 작품을 전통 루터교의 신학 언어로 읽는 것은 작곡가 이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건은 대부분의 서구 바흐 학자들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³⁾

그러나,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바흐 연구는 이러한 흐름과 사실상 결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음악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바흐 연구는 음악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느냐는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아 당대 루터교 신학 담론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신학자에 의해 이루어진 연구는 음악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섬세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실천 신학적’인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⁴⁾ 국내 바흐 연구의 이러한 기초는 결국 바흐가 다루었던 가사와 그것에 담겨 있는 당대 루터교의 신학 언어 분석이라는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는 과제를 간과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맥락 아래에서 이 연구는 바흐의 칸타타 가사를 ‘당대’의 신학 언어로 분석한다.⁵⁾

-
- 2) 라이프치히의 칸토르로 부임하기 이전에도 바흐는 루터교 예배를 위한 칸타타를 작곡하였다. 전문음악가로서의 첫 번째 직장인 뮐하우젠(Mühlhausen)의 블라지우스 교회(Blasiuskirche) 오르간연주자로 일하던 시절(1707년), 그는 부활절을 위한 《칸타타 4번》을 작곡하였고, 바이마르 궁정의 음악가로 고용되어 있었던 무렵에도 총 24편 정도의 루터교 칸타타를 창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의 강도와 규모는 라이프치히에서 이루어진 바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고 작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바흐의 라이프치히 칸타타만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펼친다.
 - 3) 이렇게 긴 기간을 루터교 예배를 위해 헌신했던 작곡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바흐 학자들은 바흐를 루터교, 교회, 나아가 신학과 분리하여 이해하려 하였다. 이들의 시도는 작곡가를 루터교 전통 내부에 위치시키려는 그 어떠한 노력보다 더 강력한 것이었다 할 수 있다. 긴 시간을 교회 음악가로 활동했던 작곡가의 이력을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지우려 했던 학자들의 노력은 서구의 바흐 담론만이 지니는 매우 흥미로운 특징이다. 이들은 1960년대 초반, 독일의 음악학자인 프리드리히 블루메에 의해 제시된 시각, 즉 바흐는 교회 음악가이지만 여기서 교회는 그의 직장에 불과했다는, 그리하여 그의 칸타타 등은 신학적 관점이 아니라 순수하게 음악적 관점으로만 파악하여야 시각을 주요 동력으로 삼았다. Friedrich Blume, “Outlines of a New Picture of Bach,” *Music & Letter* 44 (1963), 214-227을, 블루메와 관련된 상세한 국문 논의는 이가영, “진보주의자 바흐의 (새로운) 이미지에 관한 재고와 성찰,” 『이화음악논집』 21/4 (2017), 1-33을 참고하라.
 - 4) 이러한 상황에서 박윤경의 “바흐의 마그니피카트에 반영된 루터교 음악과 루터 신학,” 『음악사연구』 6 (2017), 2-25의 출판은 작품 분석뿐 아니라 당대 신학에 관한 논의를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 5) 특별히, 이 연구가 바흐의 칸타타를 ‘당대’의 신학적인 시선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조하는 이유는 최근 발표된 미국의 음악학자 마이클 마리슨(Michael Marissen)의 논의에서 큰 학문적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다. 마리슨은 바흐의 음악 작품을 ‘역사적 지식에 바탕을 둔 연주’(historically informed performance)로 구현하는 것처럼 바흐가 음악을 붙였던 텍스트 역시 ‘역사적 지식에 바탕을 둔 가사 해석’(historically informed rendering of the librettos)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 바 있다. 이후 마리슨은 이러한 지

이러한 분석을 위해 예시로 선택한 작품은 바흐의 《칸타타 75번》, ‘주린 자는 먹을지어다’(Die Elenden sollen essen)이다.⁶⁾ 이 글은 이 작품 안에 담긴 루터교의 교리와 메시지를 파악해 나가면서, 이것이 당대 청중에게 어떤 신학적 언어로 전달되고 있는지 논의한다. 특별히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칸타타 75번》에서 발견되는 두 개의 교리, 즉, ‘칭의’와 ‘십자가 신학’이다. 이 글은 칭의와 십자가 신학에 대한 신학적 담론을 재구성한 후, 루터교를 상징하는 두 교리가 《칸타타 75번》에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역설하면서, 이러한 주장이 내포하는 의미에 대해 질문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2. 칸타타의 가사 읽기: 당대 루터교의 언어로

바흐의 칸타타는 루터교 예배의 일부로 기능해야 한다는 특별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기획되고 창작된 음악 장르이다. 칸타타가 예배의 ‘일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전례가 요구하는 일련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칸타타는 교회력에 따라 매주 일요일과 중요한 축일에 연주되며, 그것의 가사는 교회력을 반영하여 당일 예배를 위해 발췌된 ‘특정’한 성서 구절을 ‘바탕’으로 편찬되어야 할 뿐 아니라 역시 교회력을 반영하는 ‘특정’한 코랄을 칸타타 중 하나 이상의 악장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이 특정한 성서 구절과 코랄은 당일 선포되고 묵상 되어야 하는 ‘본문’이다.

1723년 5월 30일, 바흐는 라이프치히 성 토마스 교회와 학교의 칸토르로 부임하여 그의 첫 번째 작품, 《칸타타 75번》, ‘주린 자는 먹을지어다’(Die Elenden sollen essen)를 연주하였다.⁷⁾

향점을 실천하기 위해 스스로 칸타타 가사를 번역하고, 온라인상에서 제공하고 있다. ‘역사적 지식에 바탕을 둔 가사 해석’의 필요성에 대한 마리슨의 사고는 서서히 진전되어 온라인상에 번역을 올리는 작업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Michael Marissen, “Historically Informed Rendering of the Librettos from Bach’s Church Cantatas,” in *Music and Theology: Essays in Honor of Robin A. Leaver*, ed. Daniel Zager (Lanham: Scarecrow Press, 2007), 103-120; *Bach & Go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31-62; 마리슨이 번역한 칸타타 가사는 <http://bachcantatatexts.org> [2023년 10월 5일 접속에서 접근가능하다.

- 6) 이 글에서 제시되는 번역은 모두 필자의 것이다. 독일어 가사의 번역을 위해 필자는 각주 5에서 언급한 마리슨의 누리집과 Melvin P. Unger, *Handbook to Bach’s Sacred Cantata Texts: An Interlinear Translations with Reference Guide to Biblical Quotations and Allusions* (Lanham: Scarecrow Press, Inc., 1996), 그리고 Alfred Dürr, *The Cantatas of J. S. Ba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등을 비교 검토하였다.
- 7) 《칸타타 75번》에 담긴 바흐의 음악적 실험과 혁신에 대한 논의는 이가영, “칸타타 75번, 〈겸손한 자는 배부를 것이며〉(Die Elenden sollen essen)를 통해 읽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음악적 혁신,” 『음악논단』 24(2010), 33-57을 참고하라.

칸토르로서의 데뷔작인 《칸타타 75번》을 연주했다는 말은 바흐가 1년 단위로 순환하는 교회력의 첫 번째 일요일을 맞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렇게 시작된 교회력은 매주, 그리고 중요한 축일 등에 연주되어야 하는 전례음악을 요구했고 바흐는 이러한 요구에 응답했다. 5월 30일을 시작으로 그는 교회력을 반영한 칸타타를 거의 매주 작곡했고, 축일을 기념하는 음악을 제공했다.⁸⁾

루터교의 교회력에 의하면, 1723년 5월 30일은 삼위일체 주일 후 맞이하는 첫 번째 일요일(First Sunday after Trinity)에 해당한다. 이 주일에는 루터교 전통에 의하여, 사도 서간 중 하나인 요한 일서 제4장 16절에서 21절과 누가복음서 제16장 19절에서 31절을 낭독하고, 1674년 작사된 사무엘 로디가스트(Samuel Rodigast, 1649-1708)의 코랄, ‘그가 잘 하였도다’(Was Gott tut, das ist wohlgetan)를 노래한다. 루터교의 전통에 따라, 이 주일 예배를 위해 선정된 본문과 선율이다. 삼위일체 후 첫 번째 일요일에 낭독되는 두 개의 본문, 즉, 사도 서간과 복음서의 발췌문, 그리고 코랄은 누군가의, 예컨대 교회 당국 등의 자의적인, 또는 임의의 선택이 아닌, 루터교 전통이 지정하는, 그리하여 이 주일에 노래되어야 하는 관습적인 텍스트라는 것이다.

이러한 루터교 예배의 전통 안에서 《칸타타 75번》의 작사가는 이 본문을 읽고 신학적으로 해석한다.⁹⁾ 왜냐하면, 칸타타의 가사 역시 당일 본문과 그것의 해석이 반영되어야 하는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작사가의 해석 과정에는 루터교 전통이 이 본문을 어떤 방식으로 읽어왔는지, 그리고 작사가 스스로는 이를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지, 이러한 독해를 바탕으로 그는 어떠한 신학 언어를 구사할 것인지, 이를 통해 청중에게 전달해야 할 신학적인 메시지는 무엇인지 등과 관련된 일련의 질문이 개입되어 있다. 이러한 숙고의 과정을 거친 후, 작사가는 작곡가 바흐에게 총 14개의 악장으로 나누어진 《칸타타 75번》의 가사를 제공하였다. 이제 작사가의 가사 해석 과정이 마무리되고, 이러한 과정이 다시 한 번, 작곡가 바흐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이다.

첫 번째 본문인 요한 일서 제4장 16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

8) 1723년 5월 30일은 1년을 단위로 하는 칸타타 사이클 중 첫 번째 기념일(주일)이 시작되는 날이다. 바흐의 첫 번째 칸타타 사이클은 1723년 5월 30일 시작하여, 이듬해인 1724년 6월 4일, 삼위일체 주일(Trinity Sunday)로 마무리된다. 이어서 작곡가의 두 번째 칸타타 사이클은 다음 주인 1724년 6월 11일에서 시작되어 역시 1년 후인 1725년 5월 27일, 삼위일체 주일까지 이어진다. 교회력에 따른 칸타타 작곡이 바흐에게 의미하는 바에 관한 논의는 Eric Chafe, *Analyzing Bach Cantata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11-22를 참고하고 일목요연한 칸타타 사이클의 요약 정리는 Malcolm Boyd, *Oxford Composer Companions: J. S. Ba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616-624를 참고하라.

9) 불행히도 우리는 《칸타타 75번》의 작사가를 알지 못한다. 바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이 작품의 작사가가 바흐라면, 그것이 함의하는 바는 매우 클 것이다. 다만, 이것에 대한 논의는 본 글의 주제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 따라서 이 글은 《칸타타 75번》의 가사를 편찬한 ‘무명의 작사가’를 상상하고 연구를 진행하기로 한다.

리도 형제를 사랑할 것을 요청한다. 두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서 제16장 19절에서 31절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잘 알려진 구절이다.¹⁰⁾ 부자와 거지라는 두 인물의 대조적인 삶을 통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서사이다. 지극히 호화롭고 풍요로운 부자의 삶, 그리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연명하며 살아가던 거지의 비참한 삶을 서술한 후, 전자는 지옥을, 그리고 후자는 천국을 가게 된다는 이야기로 이어진다. 지옥에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던 부자는 나사로가 천국에 거함을 보게 되었고, 나사로와 곁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청해보지만, 그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이 서사를 비유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부자와 거지 등의 특정 인물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칸타타 75번》의 작사가는 이 작품의 1악장 가사를 시편에서 발췌하였다. 합창으로 편성된 1악장은 본문의 내용과 공명하는 또 다른 성서 구절인 시편 22장 26절, 즉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할 것이며 주를 찾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요’(Die Elenden sollen essen, daß sie satt werden)를 노래한다. 다음은 시편에서 인용된 이 악장의 가사이다.

1악장 합창 가사

Die Elenden sollen essen daß sie satt werden,
 온유한 자들은 먹고 만족할 것이며
 und die nach dem Herren fragen, werden ihn preisen,
 주를 찾는 자들은 그분을 찬양할 것이요,
 Euer Herz soll ewiglich leben,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편 첫 행의 한국어 번역은 ‘온유한 자’이지만, 독일어 원문을 고려하면, 온유한 자보다는 ‘괴로운 자’ 또는 ‘고통 받는 자’ 정도로 읽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인다. 이 괴로움에 고통 받는 자는 나사로일 것이고 또한 그가 대변하는 기독교인 모두일 것이다. 《칸타타 75번》의 작사가는 이 시편 구절을 통해 고통 속에서도 여호와를 찾는다면 결국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것임을,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을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

그런데, 신·구약 성서의 내용에 능통한 독자라면, 이 시편 구절 안에서 두 번째 본문, 즉

10) 이 글에서 제시된 성서 구절은 그리스도 예수안에 번역,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인천: 그리스도 예수 안에), 2021에서 인용한 것이다.

부자와 나사로의 서사와 유사한 내용을 가진, 또 다른 성서 구절을 읽어내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다. 예를 들면, “너희가 풍족히 먹고 만족하며 너희를 놀랍게 대우한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와 같은 요엘서 2장 26절, 그리고 “굶주린 자들을 좋은 것들로 배부르게 하시며 부자들을 빈속으로 보내셨도다” 등의 누가복음서 1장 53절이 그렇다. 또한, 이 시편 구절은 요한복음서 6장 48절과 51절,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니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니 누구라도 이 빵을 먹으면 그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줄 내 살이라” 등도 연상시킨다.¹¹⁾

《칸타타 75번》의 1악장이 예시하는 바와 같이 칸타타 가사에서 차용되는 성서 구절은, 성서리는 문헌의 특성으로 인하여, 늘 그것과 유사한, 다시 말하면 당일 본문과 유사한 내용의 또 다른 성서 구절과 의미상 연계되어 있다. 성서가 상호 관련이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은 1악장과 같이 칸타타의 가사가 성서에서 발췌된 경우에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성서 구절이 아닌, 레치타티보와 아리아의 가사도 성서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창작되기 때문에 이 안에 또 다른 성서 구절이 내포되어 있다. 《칸타타 75번》에 등장하는 5악장, 소프라노 아리아도 그렇다.

5악장 소프라노 아리아

Ich nehme mein Leiden mit Freuden auf mich,

Wer Lazarus' Plagen

Geduldig ertragen,

Den nehmen die Engel zu sich,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리

인내하며 나사로의 고통을 안고

타고난 자라면 누구든지

천사가 그를 천국으로 데려가리라

이 아리아의 가사는 두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서에 등장하는 나사로의 고백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 가사는 누가복음서의 22장 22절, “그 거지가 죽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를 abba(mich, Plagen, etragen, sich)의 각운을 가진 시적인 언어로 재구성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이 악장에도 고린도후서 4장 17절, “이는 단지 잠시 존재하는 우리의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기 때문이라”

11) Unger, *Handbook to Bach's Sacred Cantata Texts*, 257-258을 참고하라. 옹거는 이 저서에서 개별 악장과 관련 있는 성서 구절을 나란히 첨부해두었다. 이 구절들은 칸타타 가사가 어떤 성서 구절로부터 직접 인용되었는지, 또는 어떤 구절이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바흐 칸타타의 악장에서 암시되는 성서 구절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Ulrich Meyer, *Biblical Quotations and Allusion in the Cantata Libretti of Johan Sebastian Bach* (Lanham: Scarecrow Press, 1997)을 참고하라.

와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왕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가 내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정리하자면, 《칸타타 75번》의 가사(나아가 바흐의 칸타타 가사 전체)는, 첫째, 성서에서 직접 발췌된 (시편)구절과 둘째, 성서를 시적인 언어로 재구성한 아리아와 셋째, 성서를 산문으로 재구성한 레치타티보와, 넷째, 루터교의 코랄 가사가 이 칸타타 가사로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내용상 연결된 수많은 성서 구절이 어우러진 다층적인 문학 텍스트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칸타타 개별 악장의 모양은 이렇게 다양하지만, 이들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매우 단순하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칸타타 75번》의 경우, 총 14개의 모든 악장이 공통적으로 일관되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세상에서의 고통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결국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¹²⁾

이런 측면에서 바흐의 칸타타 가사를 다시 바라보면, 이것의 내용과 형식은 당일 진행되는 설교와 닮았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마틴 루터(Martin Luther, 1583-1546)의 설교에서도 이러한 유사성은 즉시 읽힌다. 삼위일체 후 첫 번째 일요일에 진행된 루터의 설교는 누가복음서의 해석에 집중되어 있다. 여기서 그는 복음서의 기술 방식을 모델로 삼아 부자와 나사로의 삶을 비교하고 대조시킨다.¹³⁾ 루터는 부자를 ‘위선적인 의’를 행하는 인물이라 칭한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며, 심지어 세상에서 존경받는 인물일지도 모르겠다고 루터는 쓰고 있다. 부자는 자신의 의지대로 살면서 자신을 위해 율법을 지키고 더불어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경건의 모습을 갖춘 인물이다. 그가 기독교인일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자의 겉모습에서는 지옥에 떨어져야 할 명분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그는 주변 이웃의, 예컨대 자신의 대문 앞에 기거하며 고통 받는 나사로의 어려움을 살피지 않았다. 그가 나사로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던 이유는, 루터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

12) 1악장과 5장 이외의 다른 악장들도 이 두 악장과 유사한 형식 및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2악장, 베이스 레치타티보는 ‘자색 옷을 입은 부자가 무슨 소용이 있으리오, 그가 결국 사망할 것임을 안다면’(Was hilft des Purpurs Majestät, da sie vergeht?)이라는 가사를 노래하며 나사로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던 풍요로운 삶의 주인공인 부자를 조명한다. 한편, 3악장인 테너 아리아는 성찰의 대상을 나사로의 삶으로 옮기면서 그의 고백인 ‘예수는 나의 모든 것, 그의 값비싼 피는 나의 자색 옷이로다’(Mein Jesus soll mein alles sein, Mein Purpur is sein teures Blut)라는 가사를 연주한다. 4악장인 테너 레치타티보는 ‘오직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Gott stürzet und erhöhet)와 5악장 소프라노 아리아, ‘나는 이 고통을 기쁨으로 받겠나이 다’(Ich nehme mein Leiden mit Freuden auf mich) 역시 나사로의 신앙고백이다.

13) 편리하게도, 루터의 설교 번역본은 다음 누리집에서 읽을 수 있다. 이 글에서 제시되는 루터의 설교는 이 누리집을 요약한 것이다. <https://www.godwithuslc.org/luther-sermon-for-the-first-sunday-after-trinity> [2023년 10월 10일 접속을 참고하라.

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의 겉모습은 충분히 아름답지만, 그 겉모습 아래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루터가 부자를 위선적인 의를 지닌 인물로 규정한 이유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인이 아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구원도 없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루터는 이 부자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죄’로 규정한다. 이웃 사랑의 결핍은 부자의 ‘감추어진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루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이를 경험한 인간은 필연적으로 이웃을 돌아볼 수 밖에 없다는 주장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설교를 통해 부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그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점, 그리고 믿음이 없는 곳에는 사랑도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믿음이 없는 ‘모든’ 인간은 이 부자와 같은 위선자이다.

이 부자와는 대조적으로 나사로는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었을 뿐 아니라 “억압과 불안과 박해” 아래 살았던 인물이다. 그가 이러한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세상이 기독교인의 십자가를 결코 환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루터는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는 이 모든 고난을 견디고 이겨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기독교인이었고, 따라서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루터에게 나사로는 결코 외양으로만 판단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그의 남루한 외양에 감추어진 내면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세상에서의 가난과 고통을 인내한다. 이 인내 후에 받게 될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은 나사로가 세상에서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결국 나사로가 가진 믿음은 그를 구원으로 이끈다. 이러한 이유에서 루터는 모든 기독교인은 나사로가 되어야 한다고, 즉 나사로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루터가 제공한 설교의 최종 메시지가기도 하다.

의심의 여지없이 1723년 5월 30일 예배의 목표는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도록 회중을 설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일 설교와 바흐의 칸타타는 회중으로 하여금 세상에서의 고난과 고통, 그리고 이를 넘어서는 믿음의 의미를 묵상하고 성찰하게 한다. 이러한 묵상과 성찰은 루터교의 이론적 패러다임인 ‘칭의’(The Doctrine of Justification)와 ‘십자가 신학’에 기대고 있다. 이 글이 뒤따르는 논의에서 두 개의 교리에 집중하고자 하는 이유이다.

3. 루터교의 교리로

3.1. 칭의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루터교의 교리이다. 이 단순해 보이는 교리는 루터의 깊고 깊은 신학적 성찰과 논쟁과 담론 등을 거쳤고, 이를 통해 루터교 신학의 가장 상징적인 선언으로 루터에 의해 선택된 것이다. 따라서 이 개혁가는 이것을 단순한 종교적 원리로 보지 않았으며, 루터교의 “전교리가 의존해 있는, 기독교 교리의 요약이며 교회를 유지”시키는 것으로 여겼다. 루터의 이러한 시각은 칭의가 루터교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충분히 시사해주고 있다.¹⁴⁾

루터가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 이러한 교리를 확립하였는지 알기는 어렵다. 다만, 신학자들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그가 ‘칭의’와 관련된 깨달음을 얻은 것으로 판단한다.¹⁵⁾ 그런데 이러한 깨달음에 결정적인 동력을 제공한 것은 루터의 로마서, 1장 17절의 해석이다. 루터는 1515년과 1516년경, 로마서를 가르치기 위한 강의록을 준비한 바 있다.¹⁶⁾ 이 강의록에서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즉,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구절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거듭 강조하고 있다.

14) Paul Althaus,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6), 이형기 번역 『루터의 신학』 (과주: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8), 264; 칭의와 관련된 국문 연구는 정병식, “칭의와 성화를 통해본 루터 신학의 현대적 의의,” 『신학사상』 135(2006), 73-98; 성신형, “이신칭의에 대한 사회윤리적 접근,” 『장신논단』 50/1 (2018), 223-245를 참고하라.

15) 루터가 점진적으로 칭의 교리를 확립해 나간 시기는 대략 1515년부터 1519년 사이쯤으로 예상된다. Alister McGrath, *Luther's Theology of the Cross: Martin Luther's Theological Breakthrough* (Oxford: Blackwell Publishers, Ltd., 1990), 정지오·최대열 번역 『루터의 십자가 신학』(서울: 컨콜디아사, 2001), 107-109와 Bernhard Lohse, *Martin Luther: An Introduction to His Life and Work* (Edinburgh: T. & T. Clark, 1980), 이형기 번역 『루터 연구 입문』 (과주: 크리스천다이제스트, 1993), 54-55를 참고하라.

16) 루터는 1512년,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후, 이곳에서 신학을 강의하였다. 다음해인 1513년에는 시편 강의를, 그리고 1515년과 1516년에는 로마서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루터가 자신의 강의를 위해 기록한 강의록은 오늘날까지 전해져 그가 이 성서들을 어떤 방식으로 읽고 해석했는지 알게 한다. 루터의 로마서 강의는 2011년 한글로 번역되었다. 이 번역은 미국에서 출판된 루터전집 25권에 바탕을 둔 것이다. Martin Luther, *Luther's Works: Lectures on Romans, Glosses and Schoilia*, Vol. 25, ed. and trans. Wilhelm Pauck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72)을 참고하라. 이 문헌의 한글판은 이재하·강치원 번역 『루터: 로마서 강의』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이 강의록의 역사에 대해서는 이 한글 번역본의 22-25를 참고하라.

하나님의 의, 즉 누가 그리고 어떻게 의로운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지는 오직 복음 안에서만 나타나는데, 오직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나타난다. 이것은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막 16:16).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구원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이것을 통해 사람이 자신 안에서 스스로 의롭게 되는 의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의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되는 의를 말한다.¹⁷⁾

로마서 1장 17절의 해석은 루터에게 칭의의 확산만을 심어준 것은 아니었다. 이것을 통해 루터는 자신을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일련의 신학적인 난제들을 해결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1장 17절은 루터에게 신학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새로운 국면을 가져다주었다.

루터를 고뇌하게 했던 일련의 질문은 인간과 하나님의 실존에 관련된 것들이다. 루터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지, 그리하여 이 둘은 어떻게 관계 맺을 수 있는지 질문했다. 이러한 질문이 의미 있었던 이유는 루터가 인간을 죄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한 의인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결국 루터의 고민은 본질적으로 죄인인 피조물과 흠 없이 완전한 의인인 하나님은 과연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만난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였다.

루터 연구의 입문서로 간주되는 『루터의 신학』에서 저자인 파울 알트하우스(Paul Althaus, 1888-1966)가 루터 신학은 “하나님 인식과 인간 인식에 관한 것”이라고 서술하면서, 루터의 신학은 신(神)에 관한 학문이면서 동시에 인간에 관한 학문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¹⁸⁾ 루터가 인간과 신에 대한 이해, 다시 말하면, 인간과 신의 관계 규정에 대해 얼마나 오랫동안 고민하였는지에 관한 기록은 1519년경 출판된 루터의 시편 강의록 서문에서도 발견된다.

놀랍게도 이 서문에서 루터는 자신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인간을 벌하시는 전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수도사로서 흠이 없지만,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 말하였다.¹⁹⁾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또는 선한 행위를 통해서도 자신은 죄 없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루터는 죄인인 인간과 의로우신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는 매개는 아무것도 없으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이로 인해 무척 괴로워했다.

이 서문에서 루터는 심지어 인간을 심판하고, 형벌에 처하는 하나님은 인간을 떠나야 한

17) 이재하·강치원 번역, 『루터: 로마서 강의』, 105.

18) 루터는 이 둘을 분리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올바로 파악”될 수 있으며 동시에 “인간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올바로 파악”될 수 있는 존재로 이해했다. 이형기 번역, 『루터의 신학』, 26.

19) 이 서문은 이재하·강치원 번역, 『루터: 로마서 강의』에 수록되어 있다. 특별히, 42-43를 참고하라.

다고까지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루터의 사고에 변화가 생긴다. 그가 자신의 번뇌를 해결하기 위해 로마서를 읽던 중,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 드디어 중요한 진리를 자각하게 된 것이다. 루터는 이러한 자신의 경험이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그리고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⁰⁾ 루터가 사용하고 있는 표현들은 이 종교개혁가의 새로운 자각이 얼마만큼 그에게 충격적이었는지, 그리하여 얼마만큼 강력하게 그를 변화시켰는지 알게 한다. 신학자 정병식이 루터의 “칭의론은 종교개혁의 동기”라고 정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²¹⁾

루터가 자각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의인이 아니다. 결코 될 수도 없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의를 덧입을 수 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면,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어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덧입은 인간을 의롭다 칭해주신다. 선포해주신다는 말이다. 이렇게 변화된 인간에게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아가 그와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자격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성취하여 얻는 자격이 아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받게 되는 자격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격을 부여받은 의로운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는다.

부연하면, 인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은 인간이 행하는 ‘선한 행동’은 인간을 의롭게 하는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내포한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고 선한 행위를 한다 해도, 그것을 통해서도 의인이 될 수도,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은 인간이 의로워지는 것이 개인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또는 루터에 의하면, ‘외부로부터의 의’에 의해 성취되는 것이다.

루터는 ‘의’를 정의하면서 두 개의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하나는 ‘외부에서부터의 의’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자신의 고유한 의’이다.²²⁾ ‘외부에서부터의 의’는 하나님이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의롭다고 ‘선언’하면서 부여받게 되는 의이다. 따라서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동적으로 받게 되는 의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를 알트하우스는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에게 가치를 주는 행위”라고 말하며, 죄인을 용서하고, 용납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하고 있다.²³⁾ 그리고, 이러한 의는 인간에 의해서, 또는 인간의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의가 아니다. 따라서,

20) 이재하·강지원 번역, 『루터: 로마서 강의』, 42.

21) 정병식, “칭의와 성화를 통해본 루터 신학의 현대적 의의,” 2.

22) 이형기 번역, 『루터의 신학』, 256; John Dillenberger,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61), 이형기 번역, 『루터 저작선』 (과주: 크리스천다이제스트, 1994), 133-136.

23) 이형기 번역, 『루터의 신학』, 256.

루터는 이러한 의를 외부에서부터의 의로 규정한 것이다.

한편, ‘우리 자신의 고유한 의’는 인간이 행하는 의이다.²⁴⁾ 이 두 번째 의의 이해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고유한 의라는 것이 첫 번째 의, 즉 외부로부터의 의가 성취된 이후에 순차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즉,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의를 부여받은 후,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는 자신과 관련된 욕망을 억누르고, “선한 행실을 하면서 유익하게 보내는 삶의 방식”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의는 첫 번째 의의 “열매이자 결과”이다. 그리고 이 열매와 결과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표출된다. 다시 말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운 인간이 된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통해 의로운 인간이 되기 위해 요구되는 실천이다.

실제로, 루터는 그의 『탁상담화』에서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까?”라는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칭의와 더불어 인간의 행함과 삶의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²⁵⁾ 그는 “이웃의 선과 유익을 지향”해야 하고 “권한을 많이 부여받은 사람일수록 사랑의 정신으로 섬겨야”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루터는 “이웃에 대한 사랑은 신부와 신랑의 순결하고 정숙한 사랑처럼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장점만 높이고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베푸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²⁶⁾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루터의 칭의 교리는 ‘의’와 관련된, 다시 말하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설정에 관련된 신학 담론일 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의 관계 설정에 관련된 신학 담론이기도 하다.

3.2. 십자가 신학

아일랜드 출신의 신학자, 알리스터 맥그레스(Alister McGrath)는 그의 저서, 『루터의 십자가 신학』(*Luther's Theology of the Cross*)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루터의 칭의 교리가 십자가 신학으로 확장되어 나가는지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맥그레스는 칭의 교리를 정교하게 다듬어 나가던 루터가 은혜로 인간을 의롭다 선포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는 최종 질문을 만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인간을 의롭다고 판결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루터는 “가장 용감함 구절”, 즉 “이 놀라운 방식

24) 이형기 번역, 『루터 저작선』, 136.

25) Martin Luther, *Table Talk*, trans. William Hazlitt (Grand Rapids: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1856), 이길상 번역, 『탁상담화』 (과주: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5), 227.

26) 이길상 번역, 『탁상담화』, 227.

으로 죄인을 다루시는 하나님은 다름 아닌 바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숨어계신 하나님’ 즉 십자가 신학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한다.²⁷⁾ 결국,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란 칭의에 관한 사유의 확대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루터 신학의 또 다른 지향점이라 할 것이다.

십자가 신학이란 하나님이 고난의 십자가 안에서 계시됨을 함의하는 루터교의 중심 교리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참모습을 발견하는 곳은 십자가의 겹손과 수치 안이라는 말이다. 이것은 1518년, 하이델베르크에서 개최된 어거스틴 교단의 수도사 회의 개최 토론에서 루터가 선언한 명제의 일부이다.²⁸⁾ 이 역설적인 루터의 선언은 다시 한 번, 인간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그의 신학을 함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루터는 하나님이 자신의 참모습을 인간으로부터 감추고 있다고 생각했다. 인간은 하나님의 가시적인 능력, 지혜, 그리고 영광 등을 통해 하나님의 본모습을 결코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러한 가시적인 영광 가운데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십자가,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과 겹손과 비하의 상징인 십자가 가운데 존재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그 큰 고통 내면에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감추고 계신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이다. 루터는 인간이 만나고, 경험해야 할 본질은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이라 보았다. 맥그레스는 십자가 신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십자가 신학의 근본적인 의도는 단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알려진다는 사실(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건 각 개인의 고난이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 그 자신을 알리신다는 것이다... 고난과 시험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이끌려지는 수단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내포된 기본적인 역설은 각 개인의 칭의와 관련 하여 설명되어진다. 어떤 사람이 의롭다 여겨질 수 있기 위해서는, 그는 먼저 그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 사람이 의롭게 되기 전에 그는 먼저 완전히 비하시켜야 한다.²⁹⁾

위 인용문에 이어 맥그레스는 인간을 비하시키기도 하고, 의롭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의롭게 되기 위한 전제조건은 하나님이 나를 비하시키는 것이라는 말이다.

27) Alister McGrath, *Luther's Theology of the Cross: Martin Luther's Theological Breakthrough* (Oxford: Basil Blackwell Ltd., 1990), 정진오·최대열 번역, 『루터의 십자가 신학』 (서울: 컨콜디아사, 2001), 158; 국내에서 진행된 십자가 신학에 관한 논의는 문선희, “루터의 십자가 신학과 득의,” 『신학논단』 35 (2004), 117-141; 서충원, “루터의 칭의론과 십자가 신학에 있어서 계시의 인식론적 초월성,” 『기독교철학』 9 (2007), 21-57을 참고하라.

28) 정진오·최대열 번역, 『루터의 십자가 신학』, 159; 십자가 신학의 중요한 특징들은 정진오·최대열 번역, 『루터의 십자가 신학』, 160-164에 요약정리되어 있다.

29) 정진오·최대열 번역, 『루터의 십자가 신학』, 162.

하나님이 인간을 비하시키는 방식은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이다.³⁰⁾ 인간이 온전히 겸손해져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과 고난을 스스로는 결코 극복해 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갈 때, 그때 인간은 비로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알트하우스는 “십자가의 신학은 인간을 고난 받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로 간주한다”라고 쓰고 있다.³¹⁾ 인간의 비하라는 측면에서 알트하우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그리고 그는 루터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이론적 지식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실존의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인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 십자가를 객관적 실체로 인정하게 된다고 서술하고 있다.³²⁾ 십자가 사건이 곧 나에게 일어난 사건임을,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임을 인지할 때 인간은 십자가 사건 아래 계시가 된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다. 여기서 알트하우스는 루터가 상정했던 십자가의 두 가지 의미를 역설하고 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이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라는 말은 십자가 신학이 하나님의 본질을 설명하는 도구일 뿐 아니라 인간의 본질을 설명하는 도구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십자가 신학과 관련된 루터의 논의가 하나님뿐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과 신앙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³³⁾ 루터가 함의하는 십자가, 즉 고난은 하나님의 고난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고난까지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모습이 십자가 아래 감추어져 있는 것과 같이, 인간의 본모습 역시 그가 인내하는 고난 아래 감추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알트하우스는 “십자가의 신학이 소위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왔다”고 기술한다.³⁴⁾ 실제로 눈에 관찰되는 현상은 그것의 참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말이 신학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십자가 아래 감추어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감내하라는 요청이기도 하다. 이러한 고난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인간은 지극히 겸손해지고 이러한 겸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 인간의 무능을 깨닫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아간 인간을 하나님은 그의 은혜로 받아주시고, 의로운 자라 선언해 주신다.

30) 정진오·최대열 번역, 『루터의 십자가 신학』, 106.

31) 이형기 번역, 『루터의 신학』, 44.

32) 이형기 번역, 『루터의 신학』, 44; 이와 유사한 사고는 핀란드의 신학자 레나트 피노마의 저서에서도 발견된다. Lennart Pinomaa, *Faith Victorious: An Introduction to Luther's Theology* (Lima: CSS Publishing Company, 2001), 엄진섭 번역, 『루터 신학 입문: 승리의 믿음』 (서울: 컨콜디아사, 2009), 29.

33) 이형기 번역, 『루터의 신학』, 43.

34) 이형기 번역, 『루터의 신학』, 49.

4. 나가며

이 글의 목적은 바흐의 칸타타 가사를 당대의 신학 언어로 기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루터교 신학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칸타타 75번》의 가사를 상세하게 논의하고 분석하였다. 《칸타타 75번》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요한 일서, 4장 16절에서 21절과 부자와 나사로의 서사가 담긴 누가복음서 16장, 19절에서 31절, 그리고 사무엘 로디가스트의 코랄, ‘그가 잘 하였도다’(Was Gott tut, das ist wohlgetan)를 시적인 언어로 재구성한 문학 텍스트이다. 그리고 이 문학 텍스트 안에는 루터교의 칭의와 십자가 신학의 교리가 흐르고 있다.

칭의 교리의 관점에서 보면, 자신의 판단과 의지대로 살았던 복음서의 주인공인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선포 받지 못한 인물이다. 그가 이웃의 나사로에게 무심했던 이유도 의로운 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가 의로운 자였다면 결코 이웃의 고통을 방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십자가의 신학을 통해서도 부자의 입장은 잘 드러난다. 그의 걸모습은 화려하고 풍성하다. 그 어디를 보아도 고통과 고난의 흔적이 없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러하다는 말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십자가, 즉 고난이 없으므로 이를 통한 칭의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일도, 구원도 없다.

한편, 누가복음서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자이다. 믿음의 지닌 자였기 때문이다. 비록 그는 남루하고 부족하였지만, 이 가시적인 외형은 그의 본질이 아니었다. 그가 세상에서 겪었던 그 비참함과 고통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나사로의 믿음이 감추어져 있다.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세상에서는 나사로의 삶이 불행한 것처럼 보였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불행 아래는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이 감추어져 있었던 것이다.

덧붙여 《칸타타 75번》을 마무리 짓는 코랄 악장도 세상에서의 고난은 최후의 영광을 약속하는 것이라는 역설적인 가사를 다시 한 번 기억하게 하는 음악적, 신학적 장치이다. 인간이 경험하는 약함과 고통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약함과 고통은 이후 받을 영광과 은혜의 선제조건이라는 것을 이 코랄은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코랄을 노래하는 주체는 그가 세상 고통과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세상의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무리를 위해 이 글은 바흐의 《칸타타 75번》을 보다 넓은 음악적, 신학적 맥락에 위치시켜 보려한다. 바흐의 《칸타타 75번》의 가사는 이 글이 전술한 루터교의 칭의 교리와 십자가 신학이 고스란히 반영된 또 하나의 설교이다. 음악과 신학이 만나 어우러지는 설교라 할 것이다. 그런데 바흐의 칸타타를 설교로 인식하는 순간, 이 장르 안에 흐르는 루터의 신학과 그것의 당대 표현들

이 감지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1724년 5월 18일, 예수 승천 주일에 연주된 《칸타타 37번》,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Wer da gläubet und getauft wird)에도, 1732년쯤 작곡된 《칸타타 9번》, ‘구원이 여기 우리에게로 왔도다’(Es ist das Heil uns kommen her)에도 믿음과 관련된 루터의 칭의 교리가 작품의 주제로 명백하게 흐르고 있다.

바흐의 칸타타에서 십자가 신학을 만나는 것도 어렵지 않다. 바흐의 바이마르 시기 작곡된 《칸타타 12번》, ‘호느끼고, 애도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Weinen, Klagen, Sorgen, Zagen), 그리고 《칸타타 99번》, ‘주가 하신 것은 잘하신 것이다’(Was Gott un, das ist wohlgetan)에는 고난은 기독교인의 삶에서 오히려 축복이라는, 고난 속에 감추어져 있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계시라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노래되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칭의와 십자가 신학의 교리가 이 글에서 언급하는 몇 편의 칸타타에서만 제한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³⁵⁾ 이 기본적인 교리들은 루터교의 다른 교리와 더불어 바흐가 남긴 200여 개의 모든 작품에 강력하게 새겨져 있다.

그러나, 이 글은 바흐 종교성악곡의 이해가 그것에 담긴 루터교 신학의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역설하지 않는다. 다만, 바흐의 종교 성악 작품에 당대 루터교의 신학 언어가 우리의 예상치를 넘어서는 매우 깊고 넓은 수준에까지 스며들어 있다는 ‘비교적 새로운 사실’을 인지하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새로운 사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면, 루터교 교회음악 작곡가 바흐가 물려받고 마주했던 그 유구한 전통의 루터교 신학과 그것이 담긴 신학적인 맥락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 이 맥락은,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학적 맥락과는 매우 다른 것이지만, 교회 음악가 바흐가 속했던 것이기에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더욱 상세하게 설명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검색어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Johann Sebastian Bach), 루터교(Lutheranism), 마틴 루터(Martin Luther), 칭의(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십자가 신학(The Theology of Cross), 《칸타타 75번》(Cantata 75), 칸타타 가사(Cantata text), 전례(liturgy), 칸토르(Kantor), 설교(sermon)

35) 예를 들면, 2018년 발표된 마크 피터스의 논문도 루터의 십자가 신학이 바흐의 칸타타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어 있는지에 관한 신학적이고 음악적인 논의이다. Mark Peters, “Death to Life, Sorrow to Joy: Martin Luther’s Theology of the Cross and J. S. Bach’s Eastertide Cantata *Ihr werdet weinen und heulen* (BWV 103), in *Compositional Choices and Meaning in the Music of J. S. Bach*, ed. Mark Peters and Reginald L. Sanders (Lanhan: Lexington Book, 2018), 51-74.

참고문헌

- 문선희. “루터의 십자가 신학과 득의.” 『신학논단』 35 (2004): 117-141.
- 박윤경. “바흐의 마그니피카트에 반영된 루터교 음악과 루터 신학.” 『음악사연구』 6 (2017): 2-25.
- 서충원. “루터의 칭의론과 십자가 신학에 있어서 계시의 인식론적 초월성.” 『기독교철학』 9 (2007): 21-57.
- 성신형. “이신칭의에 대한 사회윤리적 접근.” 『장신논단』 50/1 (2018): 223-245.
- 이가영. “칸타타 75번, 〈검손한 자는 배부를 것이며〉(*Die Elenden sollen essen*)를 통해 읽는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음악적 혁신.” 『음악논단』 24 (2010): 33-57.
- _____. “진보주의자 바흐의 (새로운) 이미지에 관한 재고와 성찰.” 『이화음악논집』 21/4 (2017): 1-33.
- 정병식. “칭의와 성화를 통해본 루터 신학의 현대적 의의.” 『신학사상』 135 (2006), 73-98.
- Althaus, Paul. *The Theology of Martin Luther*.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66. 이형기 번역. 『루터의 신학』. 파주: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8.
- Blume, Friedrich. “Outlines of a New Picture of Bach.” *Music & Letter* 44 (1963): 214-227.
- Boyd, Malcolm. *Oxford Composer Companions: J. S. Ba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Eric. Chafe. *Analyzing Bach Cantata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Dillenberger, John. *Martin Luther: Selections From His Writings*. New York: Doubleday & Company, 1961. 이형기 번역. 『루터 저작선』. 파주: 크리스천다이제스트, 1994.
- Dürr, Alfred. *The Cantatas of J. S. Bach*.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 Lohse, Bernhard. *Martin Luther: An Introduction to His Life and Work*. Edinburgh: T. & T. Clark, 1980. 이형기 번역. 『루터 연구 입문』. 파주: 크리스천다이제스트, 1993.
- Luther, Martin. *Luther's Works: Lectures on Romans, Glosses and Schoilia*. Vol. 25. Edited and Translated by Wilhelm Pauck.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72. 이재하·강치원 번역. 『루터: 로마서 강의』. 서울: 두란노아카데미, 2011.
- _____. *Table Talk*. Translated by William Hazlitt. Grand Rapids: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1856. 이길상 번역. 『탁상담화』. 파주: 크리스천다이제스트, 2005.

Marissen, Michael. "Historically Informed Rendering of the Librettos from Bach's Church Cantatas." In *Music and Theology: Essays in Honor of Robin A. Leaver*, Edited by Daniel Zager: 103-120. Lanham: Scarecrow Press, 2007.

_____. *Bach and Go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6.

McGrath, Alisted. *The Theology of the Cross*. New York: Wiley, 1985. 정진오 · 최대열 공역. 『루터의 십자가 신학』. 서울: 컨콜디아사, 2001.

Meyer, Ulrich. *Biblical Quotation and Allusion in the cantata Libretti of Johann Sebastian Bach*. Lanham: Scarecrow Press, 1997.

Peters, Mark. "Death to Life, Sorrow to Joy: Martin Luther's Theology of the Cross and J. S. Bach's Eastertide Cantata *Ihr werdet weinen und heulen* (BWV 103)." In *Compositional Choices and Meaning in the Music of J. S. Bach*. Edited by Mark Peters and Reginald L. Sanders: 51-74, Lanham: Lexington Book, 2018.

Pinomaa, Lennart. *Faith Victorious: An Introduction to Luther's Theology*. Lima: CSS Publishing Company, 2001. 엄진섭 번역. 『루터 신학 입문: 승리의 믿음』. 서울: 컨콜디아사, 2009.

Unger, Melvin P. *Handbook to Bach's Sacred Cantata Texts: An Interlinear Translations with Reference Guide to Biblical Quotations and Allusions*. Lanham: Scarecrow Press, Inc., 1996.

인터넷 자료

Marissen, Michael and Daniel Melamed. Texts and Historically-Informed Translations for the Music of Johann Sebastian Bach.
<http://bachcantatatexts.org>. 2023년 10월 5일 접속.

Luther, Marin. Luther's Sermon for the First Sunday after Trinity.
<https://www.godwithuslc.org/luther-sermon-for-the-first-sunday-after-tr>. 2023년 10월 10일 접속.

Bach's Church Cantatas and Lutheran Theological Languages

Kayoung Lee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Bach's sacred vocal works in theological terms. In particular, by spelling out Lutheran theology crystallized in *Cantata 75*, '*Die Elenden sollen essen*', I will illustrate various ways in which it figures into those works. I will also explicate the doctrine of Justification and the theology of Cross in detail, both articulated by the reformer, Martin Luther, tracing their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in Bach's compositions. Finally, I will argue that Bach's Lutheran cantatas can be seen as a musical sermon whose purpose lies in not only its musical realization, but also its ability to deliver theological messages to its audiences.

바흐의 칸타타와 루터교의 신학 언어

이가영

이 글의 목적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와 그의 교회 칸타타 안에 흐르는 ‘당대’ 루터교의 신학 언어를 읽어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역시 신학적인 언어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바흐의 《칸타타 75번》, ‘주린 자는 먹을지어다’(Die Elenden sollen essen)를 분석한다. 이 작품 안에 담긴 루터교의 교리와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들은 어떤 신학적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지 파악해 나간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칸타타 75번》에서 발견되는 두 개의 교리, 즉, ‘칭의’와 ‘십자가 신학’이고 이것의 신학적인 의미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루터교를 상징하는 두 교리가 《칸타타 75번》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역설하면서, 이러한 주장이 내포하는 바에 대해 질문한다.

논문투고일자: 2023년 10월 30일

심사일자: 2023년 11월 20일

게재확정일자: 2023년 11월 21일